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홍보국



옥수동성당 | 1973년 9월 설립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부활 감사송 1 <파스카의 신비>

부활 성야 미사

제 1 부 빛의 예식(불 축복과 부활초 점화, 행렬, 부활 찬송)

제 2 부 말씀 전례

제1독서 | 창세 1,1-2,2(또는 1,1,26-31)

화답송 | 시편 104(103),1-2,7,5-6,10과 12,13-14,24와 35(©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 창세 22,1-18(또는 22,1-2,9,10-13,15-18)

화답송 | 시편 16(15),5와 8,9-10,11(© 1)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3독서 | 탈출 14,15-15,1

화답송 | 탈출 15,1,2,4-5,6,17-18(© 1,2)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제4독서 | 이사 54,5-14

화답송 | 시편 30(29),2와 4,5-6,11-12,13(© 2,13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5독서 | 이사 55,1-11

화답송 | 이사 12,2-3,4,5-6(© 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제6독서 | 바룩 3,9-15,32-4,4

화답송 | 시편 19(18),8,9,10,11(© 요한 6,68)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7독서 | 에제 36,16-17,18-28

화답송 | 시편 42(41),3,5,7,8; 43(42),3,4(© 42(41),2)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서 간 | 로마 6,3-11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 음 | 마태 28,1-10

제 3 부 세례 예식(성인 호칭 기도, 세례수 축복, 세례 서약 갱신)

제 4 부 성찬 전례

영성체송 | 1코린 5,7-8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입당송 | 시편 139(138),18,5-6 참조

제1독서 | 사도 10,34,7,37-43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라지만 하네. ◎

제2독서 | 콜로 3,1-4(또는 1코린 5,6-8)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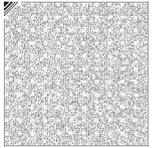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 음 | 요한 20,1-9

(또는 마태 28,1-10 또는 저녁 미사에서는 루카 24,13-35)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 매일 부활을 살아가기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알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곁에 머무르셨던 그분은 극한의 고통과 죽음을 몸소 겪으신 후 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한 줌 재로 사멸할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참 생명에 참여할 문을 열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기에, 사도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4) 이토록 중요한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떻게 자리잡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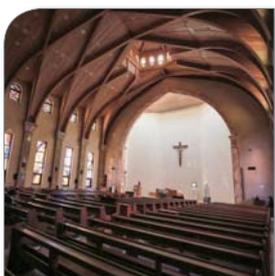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본당 신부님께 큰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다람쥐들이 출몰하여 이리저리 성당을 뛰어다니는 통에 사람들이 미사 드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신자들과 대책 회의를 하던 중 신부님은 한 가지 묘책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 묘책이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다람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성당을 드나들던 다람쥐들이 세례를 받게 되자 이제는 일 년에 딱 두 번, 부활 때와 성탄 때에만 성당에 오게 되었다는 다소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쉬이 짐작하시듯, 이 이야기는 많은 분이 부활이나 성탄 같은 중요한 날에만 성당을 찾는 현실을 꼬집는

내용입니다. 글썩요,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오랜만에 당신을 찾아온 자녀들을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시지는 않겠죠. 오히려 갖가지 이유로 평소에는 주님을 잊고 살다가도 때가 되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듯 다시 성당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느님은 마치 명절에 곁에 차려입고 시골에 내려온 자녀들을 맞이하는 부모처럼 반갑고 애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어서 오렴, 와서 좀 쉬다 가렴...” 하고 맞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많은 분들이 부활이나 성탄에만 성당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부활이나 성탄이 매년 돌아오는 연중 ‘행사’로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활은 일 년에 한 번, 봄이 되면 으레 울려 퍼지는 달달한 벚꽃 노래 같은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는 매일 악습과 죄에 물든 나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매일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먼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분이 활짝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집과 자기애에 사로잡힌 나와 결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매일 결심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옥수동성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07

● — ● — ●
목3동성당 옥수동성당 중곡동성당



옥수동성당은 1973년 9월 금호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73년 메리놀외방전교회 원조로 성당 부지를 매입하고 그해 금호동성당에서 분리하여 9월, 한 개 동(洞)만으로 이루어진 서울 교구에서 가장 적은 신자 수와 면적을 지닌 정식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1973년 150여 명이 모여 첫 미사를 봉헌한 후, 가난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의미로 주보를 '예수 부활'로 정했습니다. 1985년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성전 봉헌 미사를 거행하였는데 현재 모습의 본당은 2013년 봉헌된 새 성전의 모습입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전산정보실 부실장



최승현 카타리나 | 배우

| 부활하신 주님의 첫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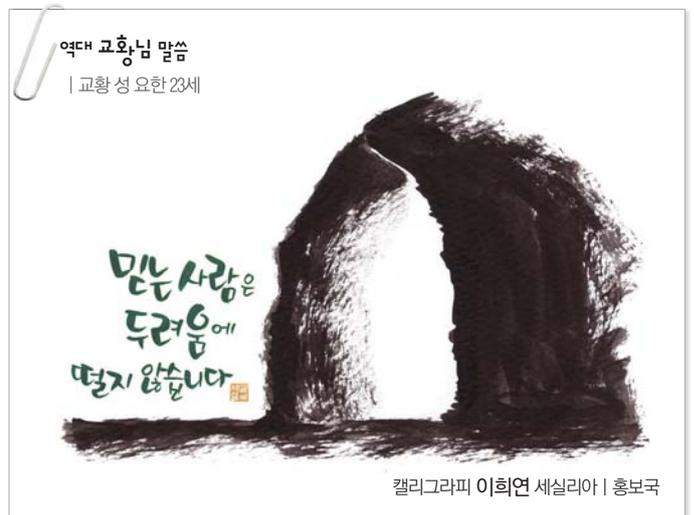
“부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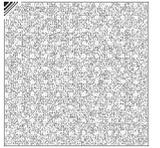
가톨릭교회의 최대 축제인 부활 대축일을 즐기는 각 나라의 다양한 풍습이 몇 년 전 가톨릭신문에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 나누기이지요. 미국에서는 경사로에서 달걀을 굴려 깨지지 않고 제일 먼저 결승선에 도착한 달걀이 이기는 ‘달걀 굴리기’와 초콜릿과 사탕이 들어있는 가짜 달걀들 사이에서 진짜 달걀을 골라내는 ‘달걀 찾기’ 등의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초콜릿을 커다란 달걀 모양으로 만들어 선물하고, 폴란드에서는 ‘축복 바구니’에 붉은 칠을 한 달걀, 빵과 소금, 흰 소시지를 담아 신부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음식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건강과 성공, 새 봄의 풍년을 뜻합니다. 부활 달걀과 함께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토끼 모양의 빵과 과자를 볼 수 있는데 토끼가 눈을 뜨고 자는 동물이라서 어둠을 이겨낸 부활의 의미와 통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네요. 이렇듯 나라마다 다른 부활 풍습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만큼은 일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큰 기쁨과 축하의 대상인 부활이 과연 이를 직접 경험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축하 인사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환희였을까요? 성경에는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놀라움, 불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주님의 부활을 들었을 때 그녀들은 덜덜 떨며 겁에 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마르코 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하시기 전에 분명히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었으니 쉬이 믿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부족한 그들에게 그 어떤 드라마의 명대사보다도 심쿵한 첫마디를 건네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마태 28,9)

당신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부활. 믿는다면 당연히 기쁘고 축하해야 하는데 귀신을 본 듯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럽고 섭섭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겐세마니에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고백하실 만큼 고통스러웠던 수난과 죽음을 겪고 부활하신 그분이 제일 먼저 염려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두렵고 놀랐을 나약한 인간의 감정을 먼저 살피주신 당신의 그 깊은 사랑 앞에 기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어지러움을 읽고 어루만져주시는, 우리를 지극히 아껴주시는 주님. “평안하냐?”는 당신의 그 인사가 너무도 따뜻합니다. 당신을 알고 당신의 부활을 축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선물하신 제 평안한 마음을 다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미사 때 촛불을 켜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창세 1,3) 예로부터 성스러운 곳이나 성스러운 예식을 거행하는 데 빛이나 불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주님 성전에는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 앞쪽을 비추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라.”(탈출 25,37)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요한 8,12)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마태 5,14)이 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촛불은 온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루카 2,32)

또한 초는 십자가상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초가 스스로 태워 빛을 주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활성야에 밝히는 부활초는 전례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뜻하는 최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성상 앞에 촛불을 켜 놓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덕을 상징하며, 전구를 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 앞에 켜 놓는 것은 그들이 곧 주님을 뵈올 수 있기를 기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성사나 첫영성체 예식 때, 수도서원이나 성품성사(聖品聖事) 때에 후보자들이 촛불을 받아들이거나 촛불을 들고 입장하는 것은, 촛불이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듯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웃을 위해 태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 때 촛불을 켜는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하심,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나타냅니다. 미사 때 제대 위에 켜는 초 개수는 그날 전례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평일이나 기념일에는 2개의 초를 켭니다. 그러나 주일이나 축일에는 4개의 초를 켭니다. 또 대축일에는 6개의 초를 켭니다. 교구장이 주례를 하는 경우에 한해 교구장 초를 밝힙니다. 일반적으로 교구장이 본당에 방문하실 경우에는 대축일 미사나 특별한 미사(1등급)를 집전하시기 때문에 초를 7개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례력(등급)에 맞게 초를 밝히고 교구장 초(+1)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탈출 13,21)

김지영 사무엘 신부

Quiz 성경 구절 중에서 공통되게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

- 탈출 10,23** |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이 있었다.
- 욘기 37,3** | 그분께서는 그것은 온 하늘 아래로 울려 퍼지게 하시고 당신의 ()을 세상 가장자리까지 비치게 하십니다.
- 요한 1,4** |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이었다.

4월9일 자 정답: ①(○) ②(x) ③(x) ④(○) ⑤(○)

15

성경속 동식물

이방인의 축제때 사용한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은 마카베오 하권에 등장한다. “달마다 임금의 생일이 되면 끌려가서 지독한 강요를 받아 이교 제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디오니소스 축일이 되면, 담쟁이덩굴로 엮은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렬을 하도록 강요받았다.”(2마카 6,7)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축제 때 강제로 부정한 고기를 먹고 담쟁이덩굴로 엮은 관을 써야 했으니 유쾌하게 기억하는 식물은 아니다.

글_「성경 속 동식물」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그림_이아름 카타리나 | 홍보국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루카 20,38)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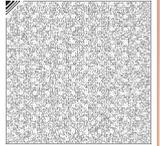
온 세상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는 예수 부활 대축일을 맞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길 빕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남북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이며,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 모든 의혹과 인간적인 계산을 날려주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2006.10.19.) 주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절망이 아닌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 온 세상에 가득 퍼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 예수 부활 대축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끝없는 위로와 기도를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미수습자들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 더 이상 무죄한 이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생명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고, 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부활을 증언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다양하며
선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우리 모두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함께하실 것입니다.

(마태 28,20 참조)

오늘 복음 말씀은 빈 무덤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고, (요한 20,1 참조) 무덤이 비어있다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증언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과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요한 20,3-6)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어둠이 빛을, 불의가 정의를, 미움과 증오가 사랑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사도 중의 사도'라고 칭송한 마리아 막달레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고, 슬픔 속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이로써 그녀는 그리스도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첫 증언자가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녀가 예수 부활을 알렸기에 두려움에 떨던 주님의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희망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불안을 간직한 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깊은 슬픔과 함께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온 국민이 인내와 슬기를 가지고 헤쳐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변화의 시작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봉사자를 뽑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와 그 결과가 국민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고 참다운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동선과 정의를 실천하며 우리나라의 통합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봉사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새로운 지도자가 갈등과 분열을 뒤로하고 화해와 일치를 통해서 화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혼자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으로 하여금 변화를 이루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 우리나라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며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에페 4,24 참조) 낳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낳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끝내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며 그 변화의 종착지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나부터 새롭게 변화되면 부활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신앙 운동인 '답게 살겠습니다'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삶과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형성되실 때까지 그분을 닮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님께서 부활을 증언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다양하며 선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우리 모두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함께하실 것입니다.(마태 28,20 참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을 맞아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께 주님의 빛과 생명과 평화가 한반도에 가득하도록 전구해주시길 청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유영수경

오늘(4월16일)은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 다음 날인 4월17일(월)은 교구청 각 기관 휴무입니다.

4월20일(목)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주교회의의 2017년 춘계 정기총회 결과

- ①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로마 미사 경본(2017년 2월21일 추인)과 미사 독서(2016년 11월18일 추인)를 2017년 12월3일 대립 제주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출판 준비. 로마 미사 경본 한국어판 발행에 맞추어 주교회의의 전례위원회는 사목자들과 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개 자료를 준비. 어린이용 미사 통상문을 별도로 만들지 않지만, 어린이들이 부를 수 있는 어린이 성가를 새로 편찬하기로 함. ‘어린이 미사’를 일반 미사와 구분하여 봉헌하는 문제는 교구장 주교의 재량에 맡기기로 함.
- ② 주교회의의 새가톨릭성가편찬위원회가 제출한 ‘가톨릭 성가(수정 보완판)와 ‘새 성가 모음(시인의 성가 목록을 확인. 주교회의의 새가톨릭성가편찬위원회가 ‘가톨릭 성가’의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고 ‘새 성가 모음(시인의 성가 검토를 마쳤으므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2017년 말에 ‘가톨릭 성가(수정 보완판)를 출판할 계획. ‘가톨릭 공동체의 성가집’, 새 전례 성가, 추천 성가, 창작 성가, 국악 성가, 생활 성가와 미사 통상문 성가 등으로 이루어진 ‘새 성가 모음(시인)’은 2018년 초에 시연용 성가로 제작되어 신학교와 주교좌 성당과 수도회 등에 약 5,000부를 배포하여 3년간 시연할 예정.
- ③ 주교회의의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가 교구와 수도회의 의견과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로마 미사 경본’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한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개정안)을 승인.
- ④ 주교회의의 천주교용어위원회가, 2014년 발행된 ‘천주교 용어집(개정판)에 일부 표제어를 추가하고 해당 항목들의 설명 등을 보완하여 마련한 ‘천주교 용어집(개정 증보판)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⑤ 주교회의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가 제작한 ‘중학생을 위한 생명교육 교재

- ‘주님과 함께 라이프-톡(학생용, 교사용)을 심의하고, 이를 승인.
- ⑥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2018년 2월4일 시행 예정)에 따라 필요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주교회의의 생명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승인.
- ⑦ 본당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올바른 사목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개발한 ‘한국 천주교회 본당 사목지표’(http://pastoralin.cbck.or.kr)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사목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구에 안내하기로 함. 아울러 사목자로서 겪는 현상의 다양한 사목 현실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소재들을 제공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실천적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나눔 교재인 ‘사목자의 리더십’과, 주교는 물론 본당의 사제와 신자들에게 사목 방문의 중요성과 의미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교구장 주교의 본당 사목방문 안내서’가 출판됨.
- ⑧ 주교회의의 2017년 춘계 정기총회 이후부터 주교회의의 의장이 당연직으로 주교회의의 천주교용어위원회 위원장,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소장, 엠마오 연수원 담당 주교가 됨.
- ⑨ 주교회의의 복음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이병호 주교의 후임으로 배기현 주교(마산교구장)를 선출함.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0년 4월23일 백남희 베드로 신부(53세)
- 1944년 4월20일 안학만 루카 신부(56세)
- 1986년 4월23일 임중국 바오로 신부(80세)
- 1996년 4월19일 신인균 요셉 신부(91세)
- 2003년 4월18일 한희동 그레고리오 신부(68세)
- 2008년 4월21일 류영도 디오니시오 신부(83세)

교구청일림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727-2336
 이재우 퀼트전: 제 1, 2, 3전시실
 전시일정: 4월19일(수)~25일(화) 오전까지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4월21일(금) 11시30분, 평화방송 10층 성당
 문의: 756-1691(내선 1번) / www.history.re.kr

행복한 가정과 자연주기법 교육
 내용: 성·생명·가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몸에 대한 이해, 건강한 임신 및 출산조절에 대한 자연주기법 실천
 대상: 자녀 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 건강한 임신을 원하시는 분, 성·생명교육 봉사를 원하는 분
 때: 4월24일~7월10일 매주(월) 오전 10시~12시30분
 곳: 교구청별관 회의실 / 신청마감: 4월20일까지
 회비: 8만원 / 접수방법: 이메일(vitavia@hanmail.net)
 문의: 727-2350~3 생명위원회

명동대성당 2017년 상반기 견진교리
 접수기간: 5월4일(목)까지 접수(선착순 300명 마감)
 교리기간: 5월7일~28일 매주(일) 14시30분~15시50분(4주간) / 견진성사: 6월4일(일) 13시30분
 자격: 세례 받고 6개월 지난 교우(2016년 11월 세례자까지만 가능) / 문의: 774-1784 본당 사무실
 서류: 견진신청서, 세례증명서, 사진 1장 / 타 본당 신자-견진교리, 교적증명서(엑스본 가능) 추가 첨부
 접수 시 신청서에 견진 대부모 필히 기재 요망. 인터넷 견진교리 수료자는 수료증 필히 첨부하여 접수 후 5월28일 교리 필히 참석하여야함

청소년국 가톨릭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대원 모집: 교구 내 주일학교 학생 대상 야영장 사용 신청(양주시 소재)
 주말농장(양주시 소재): 주일학교 신청 후 연중 사용
 문의: 762-0641(seoulscout@catholic.or.kr)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필리 4.6)

유경준 주교님과 함께하는 산티아고 성지순례
 대상: 본당 및 교구 단체 활동 중인 청년
 때: 8월18일(금)~29일(화) 11박12일
 곳: 산티아고 순례길 일부, 스페인 성지
 비용: 320만원(추후 재조정 가능)
 접수기간: 5월1일(월)~31일(수)
 모집인원: 22명(초과 접수시 자제 선택) / 문의(접수): 727-2094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홈페이지(www.educeseoul.or.kr)

장애인의날 ‘한자리축제’ / 문의: 727-224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장애인의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 행사, 미사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될 ‘한자리축제’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및 체험행사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과 장애체험활동을 실시 때: 4월1일(토)~6월30일(금) / 서울대교구 소속본당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장애인의날 기념미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사 및 행사 때, 곳: 4월23일(일) 14시, 명동대성당
장애인주간 미사	지체발달장애인을 위한 지향미사: 4월26일(수) 19시, 명동대성당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로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향미사: 4월27일(목) 19시, 명동대성당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향미사: 4월28일(금) 19시, 명동대성당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순교자 ‘오반지 바오로’
 때: 매월 셋째주(화) 4월16일 11시(117회)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향심기도(2박3일 집중 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김귀용 신부
 때, 곳: 5월19일(금) 17시~21일(일) 16시, 상지 피정의 집
 회비: 9만원 / 문의: 010-6542-8642(www.hyangsim.com)

민족화해위원회

- 1) ‘내 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미사봉헌 / 문의: 727-2420
 때, 곳: 4월18일(화) 오후 7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진남포 본당 · 중화본당
 2) 2017 평화의바람(DMZ국제평화문화축제) 참가자 모집 / 문의: 753-0815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만 19세~27세 젊은이(영어가능자 우대)
 행사기간: DMZ일대(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파주)
 때: 8월14일~20일(6박7일) / 72명(국내 36, 해외 36)
 신청 및 접수: 5월31일까지 접수(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caminjok.or.kr) 참조
- 3) 좋은부모학교 / 문의: 753-2412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참가자녀에게는 영아놀이 교육실시)
 대상: 4세~초등부 이하 자녀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일반인
 때, 곳: 5월13일~9월23일 둘째 · 넷째주(토) 10시~12시30분, 교구청별관 509호(회비 없음)

인준단체 알림

모임

삼성산 청장년 성령 기도회(야헤이레)

때: 매주(토) 18시50분~21시30분 / 874-6346, 5008
 곳: 삼성산 피정의 집 3층 중강당 / 지도: 이창진 신부

'쉽' 침묵 피정(명륜동 성령선교수녀회)

때: 4월28일 20시~30일 10시 / 대상: 40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6683-6322(www.spskorea.org)

삼성산 피정의 집 성모승 2천번 기도회

때, 곳: 4월17일(월), 24일(월) 9시30분~17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874-6346, 010-3310-8826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Fiat 젊은이 피정

대상: 만 20세~35세 미혼 남녀 / 회비: 2만원
 때: 4월22일(토)~23일(일) / 문의: 010-8920-9423

ConTe 기도모임 / 문의: 043)295-5940

대상: 젊은 미혼 여성 / cpnunkorea@catholic.or.kr
 때: 5월~10월 둘째주(일) 14시~17시
 곳: 청주 예수고난관상수녀회(주최)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젊은이 피정

주제: 그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습니다
 때: 4월23일 9시30분~16시 / 회비: 1만5천원
 문의: 010-5033-9302(www.columban.to)

제주 성이시들 자연 피정 / 문의: 064)796-9181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때: 4월25일~28일, 5월2일~4일, 5월6일~8일, 5월11일~13일, 5월16일~19일, 5월21일~23일

발달장애인을 위한 모임

보낼 곳이 없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장애인들의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한 모임에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때, 곳: 매일 둘째주(토) 14시~15시, 가톨릭회관
 후원 문의: 010-4696-8431 김성구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내 일생의 치유

내 안에 감추어진 나를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는 시간, 나도 모르는 내 일생의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치유하는 여정 / 문의: 877-2131 사무실, 010-3078-5249
 때: 5월13일~6월3일 매주(토) 14시~17시 / 회비: 5만원
 곳: 낙성대동성당(주최) / 강사: 문종원 신부 외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묵상의 집 피정

지도: 이관배 신부 / 문의: 031)674-1254, 010-4762-9372
 일일 피정, 개인 피정도 환영 / 다음카페: '미리내 묵상의 집'

월요 성경 강의	매주(월) 10시~17시
성모성심 묵상 피정	5월6일(토) 14시~7일(일) 17시

삼일위례회 전국 성지순례 · 수도원 순례

부산교구	4월25일~27일	대전교구	5월10일~12일
원주 · 춘천	6월9일~10일	문의:	010-3712-8119

어농성지 월례 음악 피정

때: 4월22일(토) 10시30분~16시 / 주제: 생명의 말씀
 강사 · 미사: 김태진 신부 / 문의(접수): 031)636-4061

예수성심전교수도회와 함께하는 성심기도회

주제: 김대선 신부 / 목주기도, 성시간, 강의, 미사
 주제: 죄에 대하여 / 문의: 379-8091(중식 제공)
 때, 곳: 4월21일(금) 10시~14시30분, 가톨릭회관 102호

제8차 전인적 치유 피정

대상: 영혼과 정신과 육신의 치유를 받아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
 때: 4월24일~6월5일 매주(월) 10시~17시(7주간)
 곳: 시흥동성당 / 회비: 2만원(중식 제공)
 문의: 010-6537-3600 하 데레사, 895-5671 시흥동성당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

때: 5월6일~7일, 5월13일~14일, 5월20일~21일, 6월3일~4일, 6월10일~11일, 6월17일~18일, 7월1일~2일, 7월8일~9일, 7월21일~23일
 출발: 전철 2 · 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7시20분(죽전, 신갈 7시40분 승차) / 문의: 010-5388-5706

마리아 사제운동 체니콜로 대피정

주제: 일치와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성모님
 미사 · 강의: 손희송 주교와 마리아 사제운동 사제단
 때, 곳: 5월5일(금) 9시~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
 준비물: 미사도구, 목주 / 회비 없음, 김밥 판매
 문의: 727-2489, 010-5146-3237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 역사 · 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 트레킹
 때: 4월29일~5월1일, 5월4일~6일, 5월14일~17일(추자도), 5월20일~22일(한라산 철쭉제), 5월28일~30일, 6월3일~5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과 성 제라도 모임(구속주회)

1)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
 기도, 강의, 미사, 고해성사 / 홈페이지: www.csskr.com
 때, 곳: 4월17일(월) 13시30분, 수유1동성당
 문의: 598-1312, 010-9239-4590 구속주회 신부
 2) 엄마들의 전자서 성 제라도와 함께하는 성시간과 미사
 난임가정, 성가정을 위한 기도
 때, 곳: 매주(목) 19시30분, 구속주회 본원
 문의: 010-8652-9403 구속주회 신부

노인 사할 피정 '죽음-웨다잉(선종) 강의 · 미사

때, 곳: 10시~14시,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전철 1 · 3 · 5호선 종로3가역 7번 출구 / 766-7370

4월25일(화)	죽음	5월16일(화)	심판	6월20일(화)	지옥
7월18일(화)	연옥	8월22일(화)	천국		

하부내포성지 해외성지순례(매주 출발)

나가사키	2박3일 / 회비: 80만원(항공편) 4인 이상 출발 가능 / 010-8760-2192
필리핀	3박5일 / 회비: 89만원
성 김대건 성지	10인 이상 출발 가능 / 1670-5541

교육

성물조각 수강생 모집

카페 (cafe.naver.com/cmc04)참조
 문의: 010-5234-5044 가톨릭목공예

커피 바리스타 교육(한국여성생활연구원)

카페 마스터 과정 / 문의: 727-2472

가톨릭여성연구원 공개 세미나

주제: 세월호에 대한 신학적 성찰
 때, 곳: 4월23일(일) 14시~16시, 노동사목센터(보문동) 6층 / 문의(접수): 318-2338(회비 없음)

예비자 통신교리 안내(우편 · 사이버)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본도빌딩 506호(우 04600)
 요금: 9천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서울대학교 성령쇄신봉사회 찬양학교 1학기 개강

과목: 보컬, 키보드, 기타, 드럼, 베이스, 바이올린
 때: 4월23일~7월19일 매주(일) 18시~20시(12주)
 문의: 867-7900, 010-7734-5748 찬양분과 총무

영적 성장을 위한 글쓰기 강좌(청담동성당)

주제: 글쓰기는 내 영혼의 집짓기 / 회비: 4만원
 때: 4월26일부터 매주(수) 19시30분(연속 5강)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422호
 문의: 3447-0750 가톨릭독서아카데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7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특별전형 원서접수: 4월24일~5월10일 / 전형일: 5월19일 (사회복지학전공, 가톨릭사회복지전공 석사만 해당)
 일반전형 원서접수: 5월22일~6월7일 / 전형일: 6월17일
 인터넷(www.jinhakapply.com) 접수
 문의: 705-8668(http://gsot.sogang.ac.kr)

석사	신학, 철학, 사회복지학, 가톨릭사회복지학	00명
박사	신학(교의 · 조직, 영성, 윤리, 환경-생태)	0명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 · 정책 · 행정)	
석 · 박사 통합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0명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 금요 침묵 피정 / 문의: 3276-7777

월례 특강	주제: 마음을 뺏기고 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강사: 박종인 신부 / 회비 없음, 미사 봉헌 4월9일(수) 13시30분~16시30분, 예수회센터(마포구 서강대길 19)
금요 침묵 피정	주제: 세상으로 나가는 문, 세상에서 돌아오는 문 강사: 이근상 신부 / 회비 없음, 미사 봉헌 4월21일(금) 10시~15시10분, 예수회센터

가정성교회 나먼저 · 가족모두 변화살기 소그룹 교육

때: 5월9일~7월18일 매주(화) 14시~16시30분
 곳: 가톨릭회관 3층 314호 / 회비: 5만원(교재비 포함)
 선착순 15명 / 문의: 010-2367-2297, 777-1773 대표전화

1강	5월9일	교육소개 내면치유 봉헌	이현주 회장
2강	5월16일	효과적인 대화	한철호 신부
3강	5월23일	자기 자신 만나기	김희희전문강사
4강	5월30일	성가정 신심	권길중평협회장
5강	6월13일	다름의 이해	이희연전문강사
6~10강	6월20일~7월18일	가족치유의 의미와방법	한철호 신부

ICPE 선교회 인격적 신앙세미나 / 문의: 010-7548-6664
 때, 곳: 5월21일 10시~15시(미사 포함), 마리스타
 교육관(합정동) / 회비: 2만원(선착순 50명)

가톨릭전례음악 하계연수

강사: 최병철, 이호중, 장윤정, 박현미, 민은홍 외
 과목: 그레고리오성가, 합창지휘, 개인발성, 오르
 간반주법 등 / 주최: 한국가톨릭전례음악아카데미
 때, 곳: 8월25일(금)~26일(토) 1박2일, 파주 참화와
 속죄의 성당 및 연수센터 / 회비: 15만원(1박4식)
 문의(접수): 010-9739-3358 심준보 / 다음카톡: 시스파나

서울가톨릭상담센터 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
 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10지구상담소(송파동성당), 17지구 상담소(화곡동성당)
 문의 및 예약: 727-2139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전화상담: 727-2137, 2138(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벨칸토 발성 아카데미

대상: 성가와 가곡을 부르고 싶은 가톨릭 신자
 (성가대원·성가대 희망자), 기타 비신자
 교육과정: 발성이론(원리·실습·호흡법), 가창실
 기(성가·가곡) / 회비: 16만원(OT 이후 환불 불가)
 때: 월요일반 5월8일~6월26일 매주(월) 19시~21시
 (8회), 화요일반 5월9일~6월27일 매주(화) 10시~12
 시(8회) / 인원: 월요일반·화요일반 각 35명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질리아홀
 문의(접수): 6364-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미사

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4월20일(목) 오전 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753-8765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 문의: 010-8360-3700

내용: 미사, 찬양, 성체조배 / 중식 제공
 때, 곳: 4월17일(월) 11시~13시, 가톨릭회관 2층 강당

모집

방배동성당 교중미사 지휘자 모집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4월23일까지 접수
 서류 접수 후 면접(개별 통보) / 문의: 584-9731 사무실

인사

삼양동선교본당 재할매장 '살림'

의류, 신발, 가방, 생활용품을 기증받음, 재활용사
 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 987-3978

알코올 중독 여성을 위한 카프치로 공동체 향나무집

중독여성의 치유, 재활을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
 램 운영 / 문의: 325-4107(www.karfwtc.com)

가톨릭출판사 혼인미사(마리아홀)

서울역 뒷편 위치(전철 2·5호선 충정로역 3분, 전철
 1·4호선 서울역 7분) / 주일 혼인미사 가능
 사랑의 성전, 정결한 연회장, 넓은 주차장
 문의: 363-9119(www.catholicbook.co.kr)

청파동성당 요원 평장모 사용 안내

청파동성당 요원에서는 8위(8기)를 모실 수 있는
 공인요원 최고급 평장 가족모를 원하는 교우분들
 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평장모 사용을 안내하오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031)942-9475 평화묘
 원, 031)855-5660 청파묘원, 704-0059 성당 사무실

요셉의원 개원 3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

가난하고 소외된 노숙인 자선 진료기관인 요셉
 의원의 감사음악회 제18회 '노래의 날개위에'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바랍니다.
 때, 곳: 4월24일(월) 19시30분,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 2634-1760(내선 0번)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문의: 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치료	개인(불안, 우울, 분노, 대인기피, 공황장애, 각종 중독중세(섬식장애), 부부·가족상담(자녀)
------------	--

도미니코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심리치료	영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치료 개인(우울, 공황, 대인기피, 분노 등) 심리검사
우가행개우리가족 행복가꾸기	5월4일~6월22일 매주(목) 10시~13시(8회) 상처 치유 P/G(회비 없음)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726-0700

개인·부부·가족 전문심리치료 인턴 및 레지던트상담	청소년 상담, 종합심리검사, 미술치료 심리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 장애, 성격), 학교 및 직장 부적 응, 대인관계 어려움, 진로상담
-----------------------------------	---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010-8126-5676 권순기 본부장
 때, 곳: 4월25일(화) 15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101호)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10호(명동)
 자녀 및 배우자, 대인관계 갈등(가정, 사회, 직
 장), 심한 우울과 불안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
 움, 노인치매예방상담 심리검사 / 모래놀이상담
 사과정: 5월16일~30일 매주(화) 18시~21시(3회)

직원모집

강화 꽃동네노인요양원 영양보호사 모집

근무 3교대(기숙사 제공), 급여 160만원 / 032)930-8500~3

서울꽃동네 신내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490-2609

어르신을 정성으로 돌봐주실 영양보호사, 간호
 사, 조리원을 모집합니다. / 팩스: 3422-3510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 계약직 직원 모집

모집부문 및 담당업무: PC 유지관리 및 네트워크
 L2, L3 장비 관리 / 전화문의 사절
 근무기간: 1년 / 대상: 초대졸 이상, 해당분야 및 관
 련 전공자 우대, 신자 또는 6개월 이내 세례받은 분
 4월18일까지 이메일(info@seoul.catholic.kr) 접수
 자세한 사항 굿뉴스(www.catholic.or.kr) 공지사항 참조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4월22일(토) 14시	수녀원(사당동)	010-8880-6367 체질리아 수녀
성가소비녀회(의정부관구)	4월23일(일) 14시	총원(전철 4호선 길음역)	010-6357-5806 조 나자레나 수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서울모임)	4월22일(토)~23일(일)	서울 분원(중구 장충단로 188)	010-8353-2323, 010-2195-1020(osh3@hanmail.net)
예수회	4월22일(토) 16시	예수회센터 이냐시오 카페	010-2874-9203(vocation_jesuits.kr)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4월22일(일)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TV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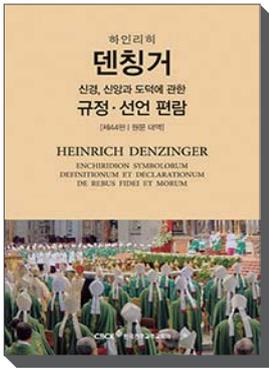
특별중계 바티칸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바티칸에서 거행되는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위성 생중계를 통해 생생히 전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주례의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와 로마에서 온 세계로 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우르비 에프 오르비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한층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cpb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



이지(www.facebook.com/cpbctv)를 통해 교회 내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일시
4월16일(일) 17시, 23시



[신간]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

페터 휘너만 편집 | 덴칭거 책임번역위원회 번역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1,728쪽 | 12만원 | 문약: 460-7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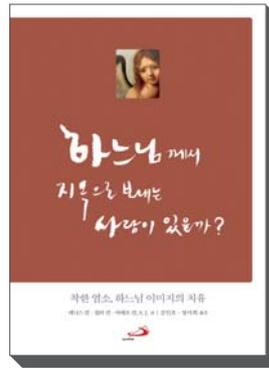
독일의 신학자 하인리히 덴칭거의 이름을 따 '덴칭거'로 알려진 이 편람은 1854년 초판을 발행한 이래 2014년 제44판까지 초기 교회부터 전승되어 온 신앙 고백문과 교도권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정통 신앙 규정집이다.



[신간] **강우일 주교와 함께 희망의 길을 걷다**

강우일 지음 | 바오로딸 | 300쪽 | 1만2천원 | 문약: 944-0944

2012년부터 최근까지 신문이나 잡지 등에 발표된 강우일 주교의 강론이나 강의,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총 6부로 구성했으며, 한 사목자의 진심을 통해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신간] **하느님께서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을까?**

데니스 린, 쉐라 린, 마테오 린 지음 | 김인호, 장미희 옮김 | 176쪽 | 1만3천원 | 문약: 945-2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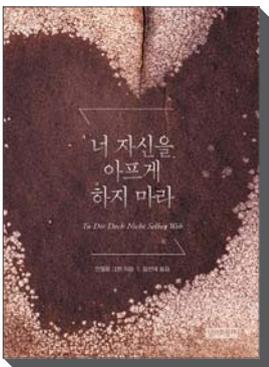
이 책은 복음서의 기쁜 소식이 '지옥과 유행'으로 겁을 주는 나쁜 소식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준다.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이야기한다.



[신간] **인간의 이해**

구분만 외 15인 지음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284쪽 | 1만3천원 | 문약: 740-9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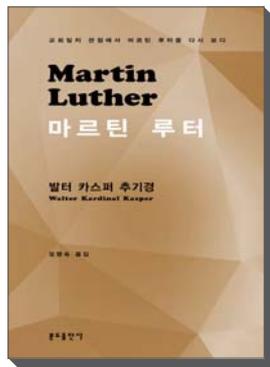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에서 인간학 교과목을 배우는 대학생들을 위한 교재이다. 인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려는 취지에 맞춰 삶의 연관성 속에서 인간을 이해해 나가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신간]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라**

안젤름 그린 지음 | 김성태 옮김 | 성서와 함께 | 170쪽 | 9천원 | 문약: 822-0125

십여 년 가까이 사랑받아온 저자의 영성서를 새로 번역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가서 그분과 일치하라는 깨달음을 전한다. 고통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내적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는 고통에 맞설 힘을 준다는 깨달음을 준다.



[신간] **마르틴 루터**

발터 카스퍼 지음 | 모명숙 옮김 | 분도출판사 | 72쪽 | 6천원 | 문약: 2266-3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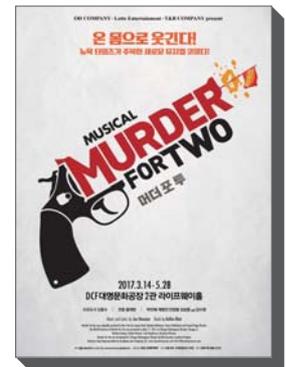
우리 시대의 뛰어난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루터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인식 변화에 기여한 카스퍼 추기경이 교회일치 관점에서 마르틴 루터와 그의 시대를 소개한다. 종교개혁 전후의 사정과 그 핵심적 의미를 짧지만 농도 깊게 전하며,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성찰도 제공한다.



[뮤지컬] **드림걸즈**

공연시간: 화~금 20시, 주말 14시18시30분
입장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 문약: 1588-5212
전화예매 후 관람일에 주보나 주보앱의 본 안내문 지침서 주보 1부 4인 30% 할인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캐스트가 내한하여 선보이는 뮤지컬 <드림걸즈>가 6월25일(일)까지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환상적인 뮤지컬 넘버를 오리지널 흑인 R&B, 소울, 그루브로 선보이며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뮤지컬] **머더 포 투**

공연시간: 화~금 20시, 토 15시19시, 일공휴일 14시18시 | 문약: 1588-5212
입장권: R석 5만원, S석 3만원
전화예매 후 관람일에 주보나 주보앱의 본 안내문 지침서 주보 1부 4인 40% 할인

미스터리 코미디 뮤지컬 <머더 포 투>가 5월28일(일)까지 DCF 대명문화공장 2관 라이프웨이 홀에서 공연된다. 단 두 명의 배우가 13명의 개성 강한 인물들로 변신하며 의문의 총격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가톨릭서울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인 허영엽 | 기획·취재편집 홍보국 언론홍보팀(commu@seoul.catholic.kr) | 편집디자인 홍보국 주보편집팀(jubo@seoul.catholic.kr) | 전화 02)727-2114 | 홈페이지 http://newsseoul.catholic.or.kr



나, 너 그리고 우리

서울주보 특별판 가톨릭서울은?

- ① 서울대교구 신자들의 건전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꾸려진 매거진입니다. 웃음과 위트가 있는 신앙생활, 상호이해와 소통을 지향합니다.
- ② “서로 사랑하라”(요한 15,12)는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 시대 신앙인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쉽고 재미있게 꾸며집니다.
- ③ 연 4회 의무 대축일(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에 발행됩니다.
- ④ 주보와 함께 본당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도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 Matthew Garrett

“
우리 모두 첫걸음을 내딛고
'뛰어들도록' 조금 더 노력합시다. ...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아무리 힘들고 기나긴 길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24항

편집장 허영엽 마리아 신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벽하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인간이 분열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기술과 인터넷은 서서히 인간의 모습을 갖춰가는 중입니다. 그저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소외감을 느끼며, 목적지도 모른 채 달리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오프라인 관계보다 온라인 관계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클릭

한 번에 인간관계를 쉽게 형성하고, 클릭 한 번으로 그 관계를 쉽게 청산합니다.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멀어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전적으로 나와 다른 '타인'. 그는 바로 다름 아닌 하느님입니다. 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 하느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느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능동하시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괴리감이 들지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른 그 타인 안에, 그 상대방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 역시 익숙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문장은 여전히 그럴 듯해 보입니다. 타인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갈등과 불화만 남아 결국 지옥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타인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의 모습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시편 27,8 참조)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신비를 알아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하고 한 배에 올라탄 공동체와 같습니다.

다.(마태 8,23 참조) 이 공동체는 각자의 개성은 다르지만 하느님에게서 받은 각각의 은총으로 '한마음 한뜻'(필립 1,27)이 됩니다. 또한 교회는 알 수 없는 불의로 초주검이 된 이웃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루카 10,29-37 참조) 타인이 불의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을 때 모두 함께 나서서 아파하고 위로해줍니다.

오늘날에는 타인의 고통도 하나의 불거리로 전락되어 소비되는 듯합니다. 같은 배에 올라탔음에도 '나'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면 너무나 쉽게 서로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상황에서 정의와 불의는 뒤섞이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변질되며, 용서와 분노는 뒤죽박죽됩니다.

서울주보 특별판 '가톨릭서울'은 타인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막을 올립니다. 교회라는 하나의 배를 타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코너를 비롯해,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도들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앞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과 닮아갈 수 있도록 겨자씨만 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 교육과 민생 등 곳곳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워든지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함께 천국으로의 여정을 떠나보시죠. ■

현장스케치

내겐 너무 버거운 당신

글 서동경 안나(서울대교구 홍보국)

#1 A 본당 성가대 단장의 별명은 '싸움닭'이다. 예수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회의를 하다 본당 단체장들 앞에서 사목회 총무와 한바탕 입씨름을 했기 때문. 사목회 총무가 대축일 미사 영성체 후에 본당 시상식이 너무 많으니 성가대 특송을 생략하자고 한 것이 화근이었다. "성가대 전원이 한 달 내내 특송을 연습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순서를 없애자고 하니 화가 나지 않겠어요? 성가대 전례의 중요한 요소인데,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싸움닭의 오명을 쓰고 특송을 지켜 낸 A 본당 성가대 단장)

#2 김 카타리나(27세) 씨는 지난 미사를 잊을 수가 없다. 한 형제님이 미사 도중 발뚧 일어나 본당 신부님의 강론이 너무 정치적이거나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겐 복음 말씀에 대한 풀이 같았는데,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나 봐요.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며 신부님께 소리치더니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그 이후로 미사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소심해진 김 카타리나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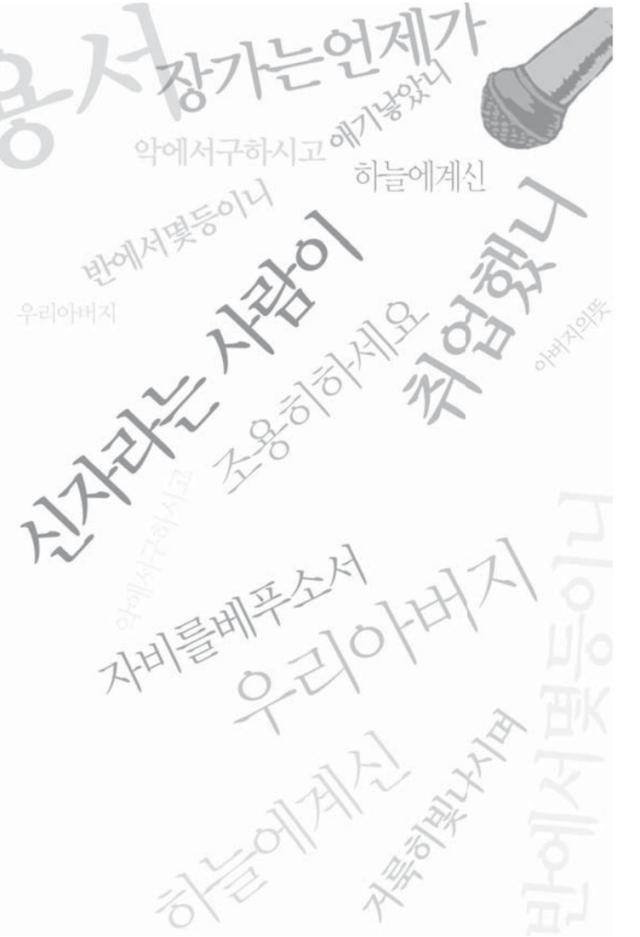
#3 미사 시간 조용히 기도하길 원하는 김희환(가명, 35세) 씨는 미사 때마다 큰 소리로 성가를 부르는 자매가 불만이다. "도대체 왜 저렇게 크게 노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잖아요. 신자가 이런 배려심도 없더니 더 화가 나요." (성가마저 싫어진 김희환 씨)

다양한 성향과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은 이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렇다 보니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다. 한 데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다 보면, 나와는 정반대 성향을 가진 신자들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날 때가 종종 있다. 심지어 성직자나 수도자와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이에 더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본당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에서 제기되는 세대 차이, 남녀 갈등, 보혁 갈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본당으로 옮겨오기도 한다.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기대하며 교회를 찾았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에 부딪혀 실망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풍경이다.

'본당'이란 말은 '이웃에 살다', '함께 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paroikia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이 중국어 '本堂'으로 번역되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앞서 소개한 A 본당의 신자들이나, 분심을 호소하는 다른 본당 구성원들이나, 결국 문제의 핵심은 '나와 다른' 이웃이다. 우리는 각자 타인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사순 메시지에서 "타인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그 선물, 참 버겁다. 하물며 착한 이웃을 만나기 위해 성당 문을 두드렸는데 이곳의 '선물'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교구 꾸르실로 담당 이재경 신부는 그럼에도 본당 공동체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한다.

"요즘은 개인주의 때문에 대부분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하느님 곁에 있으려는 이들이 자연히 본당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웃과 함께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 얼굴을 붉히는 그 이웃에게도 하느님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요. 서로에게서 하느님을 발견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고자 하는 바는 같다. 곧,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것일테다. 다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이들이 한 공간에 함께 있는 데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형제자매인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일까? 무엇이 서로를 갈등하게 하고 반복하게 할까?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 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적잖은 신앙인이 고민하고 있다. ■

신앙 유형 테스트

나를 알고, 남을 알자. 모든 사랑은 이해에서 시작한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상대방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나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지 않을까. 재미로 보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가볍게 나의 유형을 알아보자!

1 평신도로서 나의 최고 의무는?

- 모든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일이다 2번
-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2번
- 평신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교회의 중요한 지체라고 생각한다 2번
- 잘 모르겠다 6번

7 나는 고해성사를 자주 한다

- 그렇다 3번
- 아니다 11번

2 내가 보기에 성모 마리아는 이런 분이시다

- 조건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이다 5번
- 불확실한 시대에서 모든 독신여성들의 롤모델로 자리잡은 분이시다 4번
- 성모 마리아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를 보호해주시는 어머니라고 느낀다 4번

8 미사에서 활용되는 음악 중 내가 선호하는 것

- 라틴 성가나 그레고리오 성가이다 12번
- 광화문에서 울려 퍼지는 기타선율이나 길거리 미사 전례음악이다 14번
- 태양과 달을 형님 누이로 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 13번

3 가톨릭 신앙은 나에게 이런 의미다

- 영적 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을 우선 지킨다 10번
- 너무 중요해서 몇 가지 가르침들은 동의할 수 없어도 지키려고 노력한다 10번
-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살아가면서 기쁨 필요하므로 포기할 수 없다 9번
- 신앙과 침묵은 종종 동의어다 12번
- 사실 신앙에 대해 의심이 든다 14번

9 미사는 어떻게 경축되어야 하는가?

- 최대한 거룩하게 거행되어야 한다 8번
- 참례자들이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도록 거행되어야 한다 8번
- 울동을 가미해서 온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미사다 8번

4 신앙이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가?

-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5번
-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7번
-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12번

10 내가 선호하는 성당 건물은?

- 모든 사람들이 제대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구조다 9번
- 신자들의 미사 집중을 위해 최소한의 장식만 허락된 구조다 9번
- 건물로서의 교회는 중요하지 않으며, 지붕 없는 길거리 교회가 더 좋다 14번

5 나는 연옥을 이렇게 생각한다

- 죄를 처벌하는 장소다 6번
- 영적인 정화가 이뤄지는 시간이다 7번

11 성찬의 전례 성변화에 대한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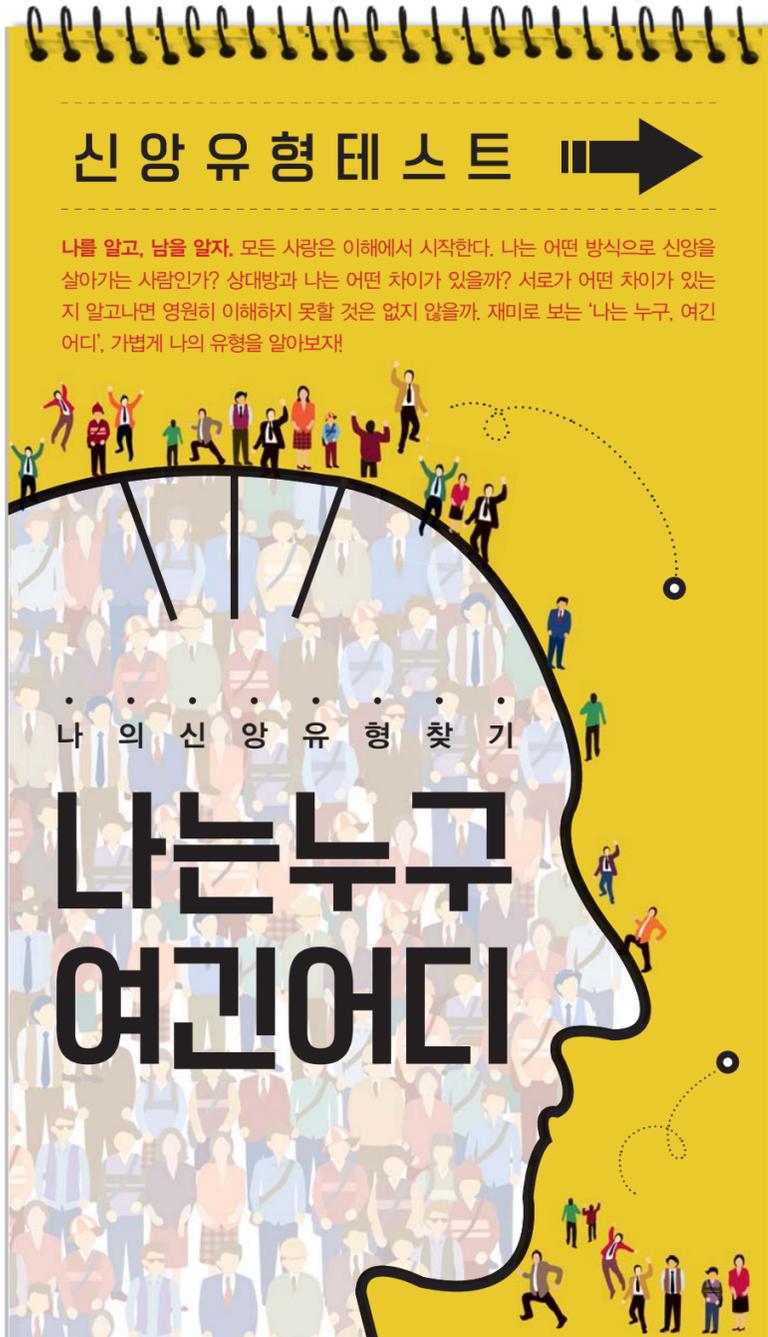
-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다 13번
-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적 현존에 대한 상징이다 13번
-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가 일치되는 상징이다 13번
- 개신교도 비슷한 예식을 한다 3번
- 잘 모르겠다 3번

6 나는 주일미사에 항상 참례한다

- 그렇다 3번
- 아니다 7번

12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져있다고 생각하는가?

- 당연하다. 교회는 늘 한걸음 늦다 14번
- 아니다. 교회는 늘 사회보다 앞서 있다 11번
- 질문이 잘못됐다. 교회는 이 시대의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 11번
- 잘 모르겠으나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13번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니 어둠으로부터 멀어지세요!”

01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단박 인터뷰 | 단박, '즉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솔직하게'의 뜻을 가진 우리말입니다. 「가톨릭서울」은 커버 주제와 관련한 중심인물을 찾아가 정말 궁금한 질문을 '단박'에 묻고 그 답을 들어봤습니다. 첫 인터뷰 주인공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입니다.

정리 김근영 기비노(서울대교구 홍보국)

염수정 추기경님 반갑습니다. 단언 한국 가톨릭교회의 핫한 인물은 추기경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름이 '단박 인터뷰'라서 질문은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따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허허. (웃음) 예, 그러세요.

요즘 사회가 양 극단으로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추기경님은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 되지 못하고 제각기 흩어지는 모습이 염려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크고 작은 다름에서 상처받은 이들도 보이고요. 사목 일선의 신부님들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거나, 제가 교회 안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 중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분법적으로 판가름해버리는 세상의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안에 여러 구성원이 있고, 서로 다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

신 평화를 세상에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신앙인들이 오히려 분열의 한가운데에 서고 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무기로 삼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직자들만큼은 '사랑'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가치관이나 이해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추기경님께서 이러한 교회 구성원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로 가는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보다 먼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앙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각자 다른 몫과 달란트를 받았지만, 결국 모두가 주님께로 가는 여정으로 초대받

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서 화가 나는 일이 많은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원망과 한으로 점철되고 말지요. 이를 뛰어넘지 못하면 주님의 선물인 평화를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십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노력해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표시로 우리에게 성사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성사 생활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성사 생활이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

13 내가 기도하는 방식은?

- ① 묵주기도나 성무일도 등 정해져 있는, 전통적인 기도를 한다 **유형 ④**
- ② 나의 단어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가끔 노래도 기도가 된다 **유형 ⑥**
- ③ 성체조배, 마음의 기도, 향식기도 등 고요한 기도를 한다 **유형 ⑤**
- ④ 누구도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는 것이 편하다 **유형 ⑦**

14 내가 선호하는 기도는?

- ① 9일 기도, 40일 기도 등 날짜를 정하고 기도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방식이다 **유형 ②**
- ② 밖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기도다 **유형 ③**
- ③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기도다 **유형 ①**
- ④ 기도하지 않는다 **유형 ⑧**

결·과·보·기



유형 ①: 성녀 잔 다르크
당신은 외향적이고 분석적이며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하며 밖에 나가 불의와 맞서 싸우는 당신.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유형 ④: 성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의 신앙체험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당신. 그럼에도 겸손을 겸비한 당신. 머릿속에서 보화 같은 아이디어들이 팔팔 쏟아져 나오는군요. 축복받은 브레인이며, 슬픈 뱃살이여!



유형 ⑦: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기초 교리지식은 부족하나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운 당신. 걱정 마세요, 뚝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전혀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죠. 때론 많이 아는 것이 하느님께로 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걸 당신이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신앙의 신비여.



유형 ②: 성 베네딕토
거룩하고 강력한 멘탈을 소유한 당신. 어딜 가든 당신은 흥반장. 규칙을 만들고 조직을 쇄신하는 일이 별로 싫지 않군요. 심지어 사람들이 늘 당신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세요! 교만하지 않고 늘 기도를 동반하는 것이 당신의 진정한 리더십의 원동력.



유형 ⑤: 성 안토니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골방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당신. 마음을 산란케 하는 모든 환경을 뒤로한 채 하느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당신이야말로 성 안토니오의 후예!



유형 ⑧: 무색무취
무색무취 당신. 우선 가까운 본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당신의 신앙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유형 ③: 성 니콜라오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당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용히 제일 먼저 달려갔다가 현장에서 제일 나중에 나오는 의리파죠. 천 마디 말보다 조용히 강력한 행동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스타일. 신앙을 거스르는 일에 직면하면 약간(?) 과격해지기도...



유형 ⑥: 성 프란치스코
미사에 교박교박 참례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하나도 흘리지 않는 당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 금요일에 당신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모퉁이에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보다 동식물과 대화하는 게 편한건 아닐까요.

결과가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미로 즐겨주세요.



특별기고

우리는 왜 서로 비난하는가?

글 김인자 로세(한국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우리는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맞닥뜨리는 현실이 어긋나면 크게 실망한다. 이때 결과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행위를 '비난하기'라고 부른다. 비난은 쌍방의 관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각자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인 성장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또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수만 명의 정신적인 에너지 수준을 떨어지게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 사람의 불쾌한 경험은 실패가 아니라 상호성장을 위한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비난이나 비판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긍정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M. Seligman)에 의하면, 비난·비판 관련 정서 경험이 반복될 때 자기방어적·자기중심적·이기적이 되고 의심·수치심 등이 확대되며, 이는 반목·우울·분노표출·자살·폭력단체가입 등 파괴적인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경계했다. 또 현실치료상담의 윌리엄 글라써(W. Glasser)는 '비난하기'를 포함한 비판·비난·불평·협박·벌하기·잔소리·상대방을 매수하거나 회유하기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아니며, 이는 모두 파괴적인 행동선택이라고 경고했다.

필자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 문제는, 문제를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부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

선 문제 해결의 출발에서 상호 성장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워서 활용하는 것이다.

윌리엄 글라써가 현실치료상담에서 비판 대신에 제안하는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했는데,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하게, 다르게 해보고 싶다"라고 피드백하는 것이다. 아울러 로널드 아들러(R. Adler)는 누구의 비난을 받았다면, 첫째 그 내용 중에서 사실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고, 추가적인 지적을 더 구하고,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필자가 개설한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과목에서 지도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비난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방어기제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비난 같은 부정적 행동 선택의 파괴적인 파급효과는 상대방 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조직·사회·한 국가의 인성과 존엄에까지 절대적·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조지 켈링(G. Kelling) 교수는 '깨진 유리창 효과'를 통해 한 사람의 사소하고 파괴적인 행동 선택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린다고 설명했다. 또 사랑과 협동을 모르는 '네안데르탈인'이 지구 상에서 멸종된 사실을 뇌 과학 연구가 밝혀내기도 했다. 그렇다고 절망하긴 이르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행동 선택

이 역으로 한 조직·한 이웃·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일도 있다.

또 지난 1960년대 심장병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 유일하게 펜실베니아 로제토(Roseto) 마을에만 심장병 환자가 없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열정적인 니스코(Nisco) 신부 한 사람의 활약이 있었다는 점이다. 니스코 신부는 해당 마을을 협동하는 마을 공동체로 만들어냈는데,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힘이 심장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잘 알려져 있듯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의 봉사활동이 콜카타 지역의 자살 위험을 낮추었다는 사실 등도 상기해 볼 만 하다.

행복하기의 달인이 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행복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때 "예수, 마리아, 요셉"을 외우자. 혹은 비난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팔씨 목주를 만져보자. 미운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100일 미사를 봉헌해보자. 필자는 최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300일째 미사 예물을 바치고 참례를 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셨다. 우리는 이를 굳게 믿어야겠다. 사랑과 협동하기로 무엇을 할지 실천 행동 목록을 먼저 계획해 붙여 놓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이를 실천하는 선택을 하자. ■

신앙생활 꿀팁

“ 마음에 주님의 거처를 마련하세요 ”

쉽고 안전하게 주님께로 가는 '기도'

글 서동경 안나(서울대교구 홍보국)

다 쓴 치약을 짜내듯이 아무리 짜내어도 이웃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도 거리에 나서기에 앞서 주님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했다. 마음속에 주님의 거처를 마련하여 늘 주님과 일치했던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자리를 내어 드리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주님께 '접속' 해보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가장 쉽고 안전하게 주님과 소통하는 '지름길'을 소개한다. ■



고해성사

피정 피정은 피세정념(避世精念)의 줄임말이다.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 꼭 장거리의 피정센터를 예약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상을 지켜나가면서 기도 안에 휴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중구 명동에 위치한 서울대교구청에서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 기도 안에서 쉬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피정이 진행 중이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마다 교구청 3층에서 진행되는 '헬로우 기도'는 기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열린 월피정이다. 2013년도부터 시작한 '헬로우 기도'는 삶의 주제를 갖고 기도하며 기도를 배울 수 있어 청년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성경 속 인물을 미디어 영상을 통해 묵상하는 '쇼바이블'은 같은 장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문의 ☎ 02)727-2031



미사

고해성사 치유라는 은총과 주님과 더욱 깊은 결합이라는 커다란 은총이 주어지는 고해성사. 판공성사 때만 찾던 고해소의 문을 평상시에도 두드려보자. 본당 고해성사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면, 서울대교구 상설고해소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명동대성당, 목5동성당, 절두산순교성지에 교구가 운영하는 상설고해소가 마련되어 있다. 이중 명동대성당 상설고해소는 화~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주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해성사가 진행된다.(월요일에는 성직자, 수도자를 대상으로 고해성사가 진행되며 평신도라면 이날은 피하지. 성직자를 위한 고해성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상설고해소도 쉬는 날이 있다! **tip** 부활 팔일 축제가 끝나는 23일(일)까지는 명동대성당 상설고해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본당에도 고해성사가 없으니 이때는 우선 예수 부활의 기쁨을 맘껏 누리길 바란다.

미사 미사에 성심껏 참례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미사 시작예절에서 바치는 참회송과 자비송만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시간이며, 하느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다. 신실한 마음으로 이를 행한 후 영성체를 하면 우리는 소죄를 용서받는다. 주님의 말씀인 복음도 말씀 전례를 통해 접할 수 있으며, 미사의 핵심인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 서울 시내 성당만 230개, 송파구 위례신도시에는 공소도 있다. 지구장 성당에서는 주일 밤 9시께도 미사를 집전하니, 서울 시내 어디서든 미사를 놓치지 말길. 미사를 드린 후에는 자리에 남아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꽤 좋은 기도가 된다.

가까운 본당과 미사 시간 검색 tip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이 개발한 <매일미사> 어플을 깔고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해보자. 근처 본당 정보가 뜨면서 손쉽게 미사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이 선 바로 그곳에서의 기도

당신이 선 바로 그곳에서의 기도 마음이 어지러워진다고 곤장 성당으로 향하기 어렵다면, 잠시 눈을 감아보자. 지하철, 학교, 회사, 불 꺼진 성전 한켠, 당신의 침실 혹은 공부방...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캐나다 오블라티 선교 수도회의 로널드를 하이저 신부의 기도 체험은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기도는 분심으로 가득 찼고, 내적 방향과 죽음과 혼란과 지루함이었다. 그러나 드물게 기쁨 때가 있다. 주님의 현존 안에서 머무르거나, 느끼고, 생각하고, 감지하고, 체험한 것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그 사실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 어디에서든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고 있다."



피정

신앙의식주



마르타를 위한 변명

글 유인창 안사노 신부(중화동본당)

“마리아요?! 어휴, 번기를 그렇게 해놓고... 저는 마르타 편이에요!” 신앙시대에 좌변기가 있을 리도 만무했지만 심하게 감정이입이 된 나눔에 저절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어떤 교우가 누군가 일을 본 직후,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번기가 막혀 넘칠 지경이 되어 있더라. 처음에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이 아니어서 그냥 두려웠지만, 수녀님이나 사무장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이 떠올라 힘들게 사태를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듯함보다는 부아가 스멀스멀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번기를 막히게 한 그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뭐 하느냐고요? 화장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서 뒤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치워야하지요! 저는요, 기도만 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별로예요. 마르타가... 딱해요.”

의

유인창 신부의 신앙을 입자

시중드는 마르타가 나의 기도 모델

저 역시 마르타(科)인지라 이분의 나눔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마르타가 등장하는 다른 장면(요한 12:2)에서도 그녀는 ‘시중’을 드느라 아주 바쁩니다. ‘마르타 = 봉사의 아이콘’입니다. 요즘처럼 봉사자 구하기가 힘든 세상에서 마르타처럼 공동체에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마르타가 예수님께 넋두리랄까 신세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기도의 모델로 삼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부당한 대우를 겪었을 때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주님께 저의 마음을 그냥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sought 감정도 잠잠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르타를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걸 뻔히 아는 분께서 마르타를 차갑게 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르타를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다정하게 짚고는’ 넘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가 애를 쓰고 있는 걸 내가 안단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니. 내게 오기 전에 마리아에게 좀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해보지 그랬어. 그리고 너도 내 곁으로 와서 좀 쉬렴. 내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

너도 내 곁으로 와서 좀 쉬렴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부탁은 하되 힘담은 삼가야 합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하소연했다고, ‘신부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이니가 가서 다 일러 바쳐야지’ 해서도 안 됩니다. 신부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 얘기만 듣고 잘못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체를 무너뜨릴 윤리적·법적 문제는 침묵하지 말고 교구청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글을 마치면서, 성당에서 마르타처럼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

유인창 신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로 1994년에 사제품을 받고, 역촌동본당 보좌, 가톨릭대 교수 등을 역임하고, 사목국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지도신부로서 오랜 시간 청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현재 중화동본당 주임신부로 사목중입니다.

나, 너 그리고 우리

글 변중찬 마태오 신부(가톨릭대 신학대학)

더불어 사는 인간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인간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우정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재화들 중 일부는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건강과 우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강론』 299D,1)

이토록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외로운 방랑객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다른 인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벗이 없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호

적이지 않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서한』 130,2,4)

특별히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뿐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세상의 온갖 어려운 시련들도 감소됩니다. 이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사슴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슴이 목초지를 찾아 어떤 섬까지 물길을 헤엄쳐 건너갈 때, 자신들의 뿔의 무게가 다른 사슴에 의해 지탱될 수 있게끔 줄을 지어 이동한다. 뒤에 있는 사슴은 자신의 목을 뻗어 앞에 있는 사슴에게 자신의 머리를 둔다. 우리의 맨 앞에 있는 사슴은 자신의 머리를 지탱해줄 수 있는 사슴이 없기 때문에, 지치면 그 자리를 뒤에 있는 사슴에게 양보하고 그 줄의 맨 뒤로 물러선다.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통해 사슴들은 섬까지 물길을 건너갈 수 있다. 친구의 짐을 짊어주는 것이 우정에 대한 최고의 증명이라는 진실의 실제적인 예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든 세 가지 다양한 질문』, 71,1)

이 세상 삶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

과 평화롭게 있으려 노력하지만, 실제 우리 삶 안에서는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휼합니다. 사실 충돌은 가톨릭 성인들 사이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정열적인 연인들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다툼과 충돌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그토록 큰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벗들이 선사하는 작은 도움으로 순간의 평화를 맛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이 살고 계시는 땅까지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결코 배고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완전한 평화의 땅으로 말합니다. ■

변중찬 신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로 1993년에 사제품을 받고, 월곡동본당, 신내동본당에서 사목한 뒤 가톨릭대 신학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

변중찬 신부의 교부들의 말씀사탕

“현금 잔돈이 필요한 너, 창피해도 괜찮아!”

글 괜찮아 신부(가톨릭서울)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애매한 궁금중이 생기곤 합니다. 본당 신부님, 수녀님께 여쭙자니 너무 사소하고, 부모님께 여쭙자니 많은 실망만 안겨드릴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려니 그들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신앙고민들 ... 여러분, “창피해도 괜찮아요!” 애매한 신앙고민들을 통해 신앙의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남편 나걱정 루카입니다. 저는 내집 마련을 목표로 올해부터는 아내에게 용돈을 타 쓰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제 용돈은 일주일에 2만 원이예요. 처음엔 호방하게 결정했는데 점차 후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상 밖에도 문제는 미사 중 예물봉헌 때 터졌습니다. 봉헌하는 줄에 당당히 선 채 주머니를 뒤적였는데, 매일 줄기차게 입고 다니는 외투이건만 주머니에서 좀체 돈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나름 십일조로 2천 원씩을 남겨놓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봉헌할 돈은 오늘 아침 아내에

게 미리 받아둔 일주일치 용돈, 내 호주머니 전 재산인 만 원짜리 두 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어느덧 봉헌함은 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용돈 전부를 내놓기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짧은 순간 별 생각이 다 떠오르더군요. 그 때 봉헌함 안의 수많은 천 원짜리 ‘잔돈들’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신부님, 혹시 현금을 거슬러가도 괜찮을까요? 마음의 준비도 없이 호주머니 절반을 봉헌하기엔 제 자신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38세, 나걱정 루카)

A 안녕하세요? 괜찮아 신부입니다.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그리고 미사 중에 분심이 많이 들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형제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결국 봉헌함에서 잔돈을 바꾸어 가셨나요?

액수보다 정성

우리가 보통 동일현금이라고 하는 현금은 옛날 초기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사도 4:34) 당시에는 신자들이 미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를 비롯해 올리브기름, 과일, 초 등 교회의 박애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을 봉헌했습니다. 이 때 돈도 함께 봉헌하면서 금전을 봉헌하는 ‘현금’이 전례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대신 현금이 많아지자 마침내는 돈을 헌납하는 것으로 굳어져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거지요.

사실 현금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헌금하는 사람의 자기 희생을 뜻합니다. 쓰고 남은 것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도 마찬가지죠. 희생제물의 성격을 갖는 현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봉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중요한 것은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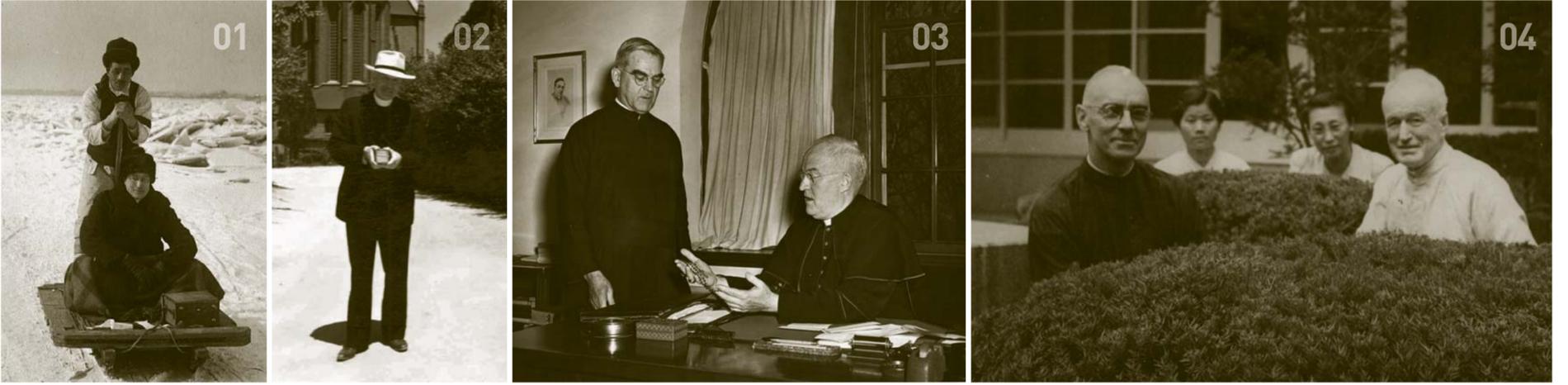
이 뜻을 잘 보여주는 어린이 성가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사가 좀 바뀌었던데, 봉헌 때면 아이들이 목 놓아 부르던 노래였죠. “먹고싶어 죽겠는 걸 사먹지 않고, 이날을 기다리며 모이왔어요” ♪♫ 특히 ‘죽겠는 걸’ 부분에서 아이들은 정말 눈을 질끈 감고 외치더군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당연히 그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웃도 그에 맞춰 입고 나가고, 그와 함께 쓸 돈도 주머니에 넣어두고 말이지요. 그러면 하느님께 희생제물과 감사의 표시로 봉헌하는 현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미사 중 봉헌하는 현금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괜찮아 신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로 신자들이 주님의 자비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익명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주

괜찮아 신부의 신앙을 살자



01 미국명 육한 속 선교 여정 중 얼어 붙은 압록강에서 설매를 타는 번 주교(당시 신부)
 02 명동대성당에서
 03 1963년 번 주교의 순교 후 유품인 목주개 메리놀 총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04 1949년 추경, 번 주교의 교황 사절관에서의 마지막 사진. 서울 궁정동 교황 사절관 봉사자들과 함께 했다. 오른쪽이 번 주교, 왼쪽이 비서 부드 신부이다.

초대 평양지목구장 패트릭 번 주교가 보낸 “하늘에서 온 편지”

1927년 3월은 서울대목구로부터 평양지목구가 분리·설정돼 초대 지목구장으로 패트릭 번 주교(Patrick J. Byrne, M.M., 1888-1950, 한국명 방일은)가 임명된 달이다. 올해로 벌써 9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평양교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만 해도 북녘엔 57개의 성당과 5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신자와 수도자, 성직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평양교구장 자리도 공석이 되어 현재까지 서울 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 자리를 맡고 있다. 가톨릭서울은 평양교구 설립 90주년을 맞아 번 주교의 비서신부였던 부드 신부의 증언록 내용을 바탕으로 초대 평양지목구장 패트릭 번 주교의 가상편지를 구성해보았다. 뜻깊은 날, 하늘에서 번 주교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북녘의 형제자매들과 하늘의 평양교구 순교자들에게 이 편지를 바친다. **정리·편집 서동경 안나·김근영 가비노(서울대교구 홍보국) | 감수 장금선 예로니모 신부(평양교구 사무국)**

나의 사랑 평양, 안녕! 주교 방일은(패트릭 번 주교의 한국 이름), 천국에서 인사 올립니다. 벌써 평양교구가 90주년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1923년 처음 평양 땅을 밟았을 때, 그리고 1927년 그곳에 처음으로 교구장이 되었을 때 저는 우리 교회의 순박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참 좋았습니다. 사람이 좋으니 그곳의 동식물도 참 좋았더랬지요. 그래서 제 별명은 ‘조용한 아침의 순교자’, ‘한국인 패트릭’이었습니다. 이 별명은 이곳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저를 부르는 수식어가 됐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조선땅의 우리 교회와 신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평양교구는 참 열심한 신앙인들이 많았던 교회였지요. 1927년 서울대목구에서 분리되어 평양지목구가 설정될 때,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기뻐했었나요. 메리놀외방선교회 신부, 수녀들과 평신도가 함께 손잡고 기뻐하던 것이 었그제 같습니다. 1943년에는 우리 교구 본당이 19개나 되었고, 공소는 106개, 학교 22개, 복지기관은 17개나 되었지요. 평양 지역의 문화는 우리 신자들이 선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가난한 이웃을 먹여 살렸고, 꿈에도 그리던 한글 교재를 가지고 교리공부를 했습니다. 참 사랑스런 신자들이었지요.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미국인이었던 우리 메리놀 회원들이 모두 조선 밖으로 쫓겨났을 때는 우리 회원들이 평양의 착한 신자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해방되고 바티칸과 수교하게 되면서 1947년 8월 저는 비오 12세 교황님에 의해 초대 교황 사절이 되어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땅에서 주교품을 받았지요.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명동대성당에서의 주교서품식때는 하마터면 어깨춤을 출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교 문장에 한국인이 사랑하는 꽃, 무궁화를 새겨넣었습니다. 무궁화는 ‘끝없이 피는 꽃’ 아니던가요. 한민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따라야 할 완벽한 전경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울 궁정동 교황대사관에 있었지만, 메리놀 회원들은 다시 평양 땅으로 갔지요. 그러나 그곳은 공산정권이 들어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정권은 종교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면서도 미신이라 하여 해방된 지 1년 안에 사찰하고, 2-3년 만에 기독교 연맹에 속한 몇몇 목사를 제외한 모든 성직자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교회를 폐쇄시켰지요. 하지만 우리 평양 신자들은 참 위대했습니다. 6대 교구장이었던 홍용호 주교님은 일제에 의해 혈령된 평양교구 주교좌 관후리 성당 터를 도로 받아와 1946년 8월 서울대교구의 명동대성당보다도 열두 자나 더 큰 성당을 지으셨지요. 그러나 1948년 12월 공산당이 관후리 성당 건물을 평양 인민위원회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우리 홍용호 주교님의 안녕과 평양교구의 존속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티칸 외교관으로서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이 합법적인 독립국가임을 인정받도록 도왔습니다. 평양의 양 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조선땅의 착한 양 떼들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제 바람과는 다르게 북녘의 교회는 핍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49년 5월 홍용호 주교님이 피랍되었고, 6·25전쟁 직전까지 모든 천주교회 사제들이 체포당하였지요. 이때 끌려간 신부님들은 15명이 넘었고, 신학생, 평신도, 어린 복사들의 수난도 상당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 전쟁 기간에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에 내려와서도 똑같이 교회를 탄압하고 성직자들을 체포하고 학살했습니다. 그 유명한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었지요.

이때 제가 미국의 권고를 따라 미국인들과 함께 일본으로 대피하지 않은 이유는 별다른 것이 아닌

니다. 교황 사절인 만큼 저는 이 땅의 성직자들과 신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서울에 입성한 인민군들이 궁정동 교황 사절관까지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약탈하며 못살게 굴기에 저는 명동의 주교관으로 거처를 옮겼을 뿐입니다. 당시에 서울대교구장 노기남 주교님께서 로마 일정을 소화하던 중이었기에, 대교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컸습니다.

그러다 1950년 7월 11일 저는 더운 날씨 때문에 테라스에 잠시 나와 있다가 인민군에게 발각되었지요. 다른 외국인 성직자와 수도자들과 함께 투옥했다가 저는 인민재판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날의 심

한 모욕과 심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양으로 이송된 이후 만포, 고산진, 초산진 등을 거쳐 11월 7일 중앙진 부근 하창리 수용소로 이어지는 죽음의 행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늘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내게 이런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같은 달 25일, 순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평양교구. 여전히 그곳의 성당은 불을 밝히지 못하나요. 나는 제가 지닌 사제직의 은총 다음으로 내 삶의 가장 큰 은총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수난받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맞으라는 우리 수도회 규칙처럼, 저는 제게 오는 모든 이들을 언제나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 맞았습니다. 성체 앞에서 한 시간의 기도를 바치고, 한밤중에도 성무일도를 이어가고, 매일 묵주기도 15단을 봉헌한 이유는 바로 내게 온 나의 주님, 나의 평양교구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땅에서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스런 양 떼들을, 서울대교구의 형제자매들께서도 잊지 말아 주세요.

“**내가 지닌 사제직의 은총 다음으로 내 삶의 가장 큰 은총은 당신들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수난 받는 것입니다.**”
 『비서였던 부드(W. Booth) 신부에게 남긴 말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늘 내 소원이었지요. 좋으신 하느님께서 내게 이런 은총을 주셨어요.**”

『죽음의 행진 중에 얻은 고초와 질병으로 죽음을 맞게 된 번 주교가 함께 끌려갔던 춘천 지목구장 퀴린(T. Quinlan, SSC) 몬사블(후일 주교로 서품됨)에게 하신 말씀』

05 동물을 사랑한 번 주교(당시 신부)
 06 1949년 10월 25일 번 주교의 환갑 잔치
 07 명동대성당에서 주교 서품 후 퇴장 행렬 (리보 원 주교와 노기남 주교와 함께, 1949년 6월 14일)





1

콩나물국채쌈 참치 비빔밥

곰손의 생명 밥상 도전기

일상생활 속 교회 가르침 실천하기



글 구어진 플로라(서울대학교 구 흥보국)

신앙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보듯 환경에 대한 관심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목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환경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거창해보일 수 있지만 우리 각각의 가정에서 바른 먹거리 찾기를 실천하고 친환경 식품에 관심을 가지는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명 '곰손'(곰손이라 쓰고 '동손'이라 읽는다. 곰손의 반대인 사람을 이르는 말)으로 불리는 내가 직접 채소를 키우고 재배해 요리를 하는 '자급자족' 라이프를 실천해보았다. 우선 다른 채소보다 키우기 어렵지 않은 콩나물과 새싹으로 시작해보려 한다. ■

도전! 첫째 날

콩나물을 키우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콩나물 키우기 세트'를 구입. 콩나물 콩과 플라스틱 용기 등이 만 원을 넘는 사악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다. 잘 알지 못해 거금(?)을 들여 구매했지만, 집에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에 구멍을 뚫어 활용해도 될 듯하다. 새싹 재배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서 구입했다.



△ 콩나물 콩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불린 후 수시로 물을 준다. 검은색 비닐봉지로 시루를 완전히 감싸 빛을 차단한다.

콩나물과는 달리 새싹 키우기는 큰 성공을 거뒀다. 조그만 무순 씨앗이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으로 자라났었다. 무순에는 천연 비타민이 듬뿍 함유돼 있다. 3~5일이면 다 자라는데, 이런 새싹 채소는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 물질과 필수영양소가 다 자란 채소보다 훨씬 많다. 새싹을 거둘 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보다는 직접 내 손으로 키운 채소를 수확해 먹는다는 생각에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키우는 재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농약 걱정 없이 직접 키워 먹으니 건강도 챙기고 일석삼조인 셈이다. 정성스레 키운 채소를 수확 후 본격적인 요리에 나섰다.

바로 '곰손'인 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콩나물국과 새싹 참치 비빔밥!



쓱쓱쓱 잘 비빈 새싹 참치 비빔밥이 콩나물국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니 조화롭기 그지없다. 직접 키워 더욱 신선한 무순의 식감과 더불어 입안에 재료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무순을 거둘 때 미안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혼자서 2인분 비빔밥을 다 비워냈다.

봄을 맞아 새싹과 콩나물 등 채소를 키워 각종 요리에 활용하면 좋다. 환경도 생각하고 바른 먹거리 찾기를 실천하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도전! 둘째 날

식막한 사무실에서 콩나물과 새싹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재미가 쏠쏠했다. 하루 종일 이 생명체를 들여다보니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침, 1박2일 일정의 교구청 직원 연수가 다가왔다. 새싹은 그렇다 쳐도, 콩나물은 물을 수시로 줘야 한다던데... 어떡하지? 일단 물을 최대한 많이 주고 연수를 떠났다.



도전! 다섯째 날

연수에서 돌아온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콩나물이 상한 것이다. 오, 주님. 마감 날은 다가오고 편집장의 재촉이 시작됐다. 결국, 우리농명동직매장에서 친환경 콩나물을 구입했다. 내 손으로 콩나물 키우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경험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조심스럽게 나를 위로해본다.

▶ 무순 씨앗을 물에 6시간 이상 불린 후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키친타올을 깐다. 물을 충분히 적신 후 이를 정도 지나자 싹이 트기 시작했다.



콩나물국 간단 레시피



- 1 키운 콩나물은 콩 껍질을 제거해 깨끗이 씻는다.
- 2 대파와 청, 홍고추를 송송 썰어 준비한다.
- 3 멸치를 볶다가 물을 넣고 멸치육수가 우러나면 멸치를 건져낸다.
- 4 냄비에 콩나물을 넣고 물을 부어 뚜껑을 열고 끓인다.
- 5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 대파와 다진 마늘, 고추를 넣는다.
- 6 15분 정도 더 끓이다 새우젓(혹은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춘다.

새싹 참치 비빔밥 간단 레시피



- 1 새싹은 체에 받쳐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물기를 뺀다.
- 2 참치는 기름기를 뺀다.
- 3 그릇에 밥을 담고 새싹채소와 참치, 김치 등을 담는다.
- 4 위에 달걀 프라이를 올리고 참기름과 깨소금을 뿌린다.
- 5 초고추장을 곁들인다.

순교자현양위원회가 전하는 한국 천주교회 230년 바티칸 특별전

‘한국 교회사 다룬 특별전, 최초로 바티칸에서 열려’



글 안수진 세실리아(순교자현양위원회)
 순교자현양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바티칸 박물관에서 특별전 '한국 천주교회 230년'(가제)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개최한다. 본래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2주년에 맞추어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시는 '자비의 희년' 선포로 인해 순연된 것으로, 바티칸 박물관 52개 전시실 가운데 하나인 '브라치오 디 카를로마노(Braccio di Carlomagno)' 홀에서 진행된다. 이 전시관은 최근 성 요한 바오로 관련 전시와 희귀 성경을 전시한 곳으로 주로 특별 기획전이 열리는 곳이다. 전시는 '한국 천주교회 230년'과 '교황방한 기록과 한국의 성지'라는 두

가지 주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순교자현양위원회 부위원장 원종현 신부는 "이번 바티칸 특별전은 한국 천주교 문화와 유산을 보편 교회에 알릴 좋은 기회"라며 "교회 유물 역시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만큼 교회를 초월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신자들을 위하여 향후 지상전(紙上展)의 형태로 전시를 소개함으로써 아쉬운 발걸음을 대신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발맞추어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역사박물관이 공동 기획하여 개최한 '서소문·동소문 별곡'展 운영 당시 바티칸 박물관에서 대어 한 유물을 직접 운송해 온 바티칸 민속박물관

관장 니콜라 마펠리(Nicola Mapei) 신부는 전시에서 다뤄진 한국 교회의 특성, 전시규모와 전문성에 대해 감탄하며 "이러한 전시를 바티칸 박물관에서도 개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번 전시가 성사된 배경에는 이처럼 독특한 역사적 특성을 가진 한국교회에 대한 보편교회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 2014년 방한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 순교자들의 증언 위에 세워진 젊고 역동적인 한국교회를 보았다"는 소감을 나타낸 바 있으며, 평신도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복음화한 한국교회를 높이 평가했다. 바티칸 박물관을 통해 세계인에게 공개되는 이번 전시가 한국 교회의 독창성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

가톨릭세상 '가툰toon'

교구단신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글·그림 송현철 안토니오(서울대학교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
사람으로 모인 청년들이다.

지저스~
알럽유~!!



청년들을 교회의
미래라고 한다.

우풍당당

요즘 사회에선
우릴 N포 세대라 부른다.

인간관계 포기
출산 포기
희망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젊은 포기
꿈 포기
연애 포기

포기?

그런적
없는데...

교회 안에서
구성원의 고령화와...

막내야!

네...

포지션: 10년째 막내
34세 직장인 동치성 요섭

기성세대와 소통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 속에 지치고 상처 받은 청년들이
하나, 둘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과중한 업무로 일상은 무너지고...

젊다는 이유로 교만하거나
덜시당하지 않으며
좌절과 두려움 앞에서도
굳건하게 밀어붙이고
말이나 행실에서 겸손과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더욱 다가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 뜻에 따라 살아가길 용기를 주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도구로 쓰임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톨릭 청년의 기도 중에서-

예수 부활 대축일, 세월호 3주기 함께 기린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4월 16일 낮 12시 명동대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하는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을 위한 미사로 봉헌한다. 이번 추모 미사는 유가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한편, 하루빨리 미수습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 오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도 광화문 광장에서 '예수 부활 대축일 현장 미사'를 봉헌한다. 예수 부활 대축일은 춘분이 지난 만월(滿月) 이후의 첫 주일로 해마다 그 날짜가 바뀐다. 마침 올하는 세월호 참사 3주기인 4월 16일에 예수 부활 대축일을 맞았다.



2015년 4월1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단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빠르고 정확한 바티칸방송 한국어판 예수 부활 대축일에 다시 문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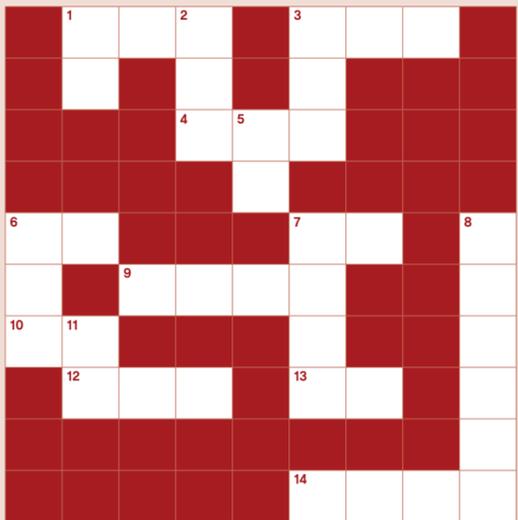
교황청 공식 매체 바티칸방송(Radio Vaticana) 한국어판이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가동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바티칸방송 한국 지부 위탁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3월 체결하고, 보름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한국어판 사이트의 정식 운영 준비를 마쳤다. 한국어판은 교황 강론(全文)과 바티칸방송 기사의 내용을 번역해 제공한다. 이로써 교황 동정과 주요 메시지 및 강론 내용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한 한국어 기사로 접할 수 있게 됐다. 기사는 바티칸방송 웹사이트(kr.radiovaticana.va)를 통해 텍스트와 사진 형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바티칸방송 역사상 로마 바티칸이 아닌 지역 교회에 지부가 설립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생명위 '제12회 생명의 신비상' 공모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 이하 생명위)가 제12회 생명의 신비상을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공모 부문은 생명과학분야, 인문사회과학분야, 활동분야 등 총 3개 부문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의 신비상 홈페이지(www.생명의신비상.com)를 참고하면 된다. 생명위는 지난 1월 18일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제11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을 열었다. 생명과학분야 본상에 윤건호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활동분야 본상에 최예용 소장(환경보전시민센터)이 선정됐다. 생명의 신비상은 2006년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로세로 퍼즐!

퀴즈 풀고 선물도 받고!



힌트를 원하시나요? 서울주보 특별면 '가톨릭서울' 기사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올해 발행되는(4월 16일, 8월 15일, 12월 25일) '가톨릭서울'의 낱말 퍼즐 37자를 모두 풀고 해당 퍼즐을 지면에서 오린 뒤, 모두 모아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응모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명을 선정하여 해외성지순례를 보내드립니다.** *추첨은 연말에 진행됩니다.

이메일 : commu@catholic.or.kr | 문의 : 02)727-2030
우 편 : (04537) 서울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홍보국
서울주보 특별면 '가톨릭서울' '독자와 함께' 담당자 앞

정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가·로·풀·이]

- 조지 켈링(G. Kelling) 교수가 한 사람의 사소하고 파괴적인 행동 선택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린다고 설명한 개념. '깨진 000 효과'
-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도록 성품성사의 세 가지 품 가운데 첫 번째 품. 다른 두 가지 품은 사제품과 주교품이다.
- 파스카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설정된 40일간의 기간.
- 초대 교회 시대에 일어난 현상(現象)의 하나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각국어로 이야기한 사도들의 말.
-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룩한 표지.
- 하나의 실체(實體) 안에 세 위격(位格)으로서 존재하는 하느님의 신비.
- 하느님께서 영혼의 선을 위하여 인간에게 부어 주시는 내적이고 초자연적인 도움 또는 선물.
- 초대 평양지목구장 패트릭 번 주교의 주교 문장에 그려진 꽃.
-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뿔이 난 이 '동물'을 예로 들면서 벗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 우정에 대한 최고의 증명이라고 했다. 이 동물의 이름은?
- 교구장 주교가 관할 교구 내 모든 신자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의 공식 문서. 내용은 교구 신자들이 특별히 믿고 실천해야 할 교리, 신앙, 전례 등을 다룬다.

[세·로·풀·이]

- 예수님께서 손수 뽑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스승을 팔아넘긴 제자의 이름.
- 사제가 성가대와 함께 미사 고유문뿐만 아니라 파견 선포까지 노래로 하는 미사.
- 예수 부활 대축일 혹은 부활 시기.
-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일.
- 초대 평양지목구장 패트릭 번 주교의 한국 이름.

- 칠성사 중 하나로, 사제가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되어 이루어진다.
- 아시아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남긴 '피조물의 찬가'의 후렴구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화칙으로 알려진 제목.

(독자와 함께) 독자참여 안내

'가톨릭서울'을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신자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찬성과 비판,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가톨릭서울'과 소통하세요.

- 나의 성물 이야기**
남들에게 평범해 보여도 내겐 특별한 성물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 신앙생활 한 장**
나를 신앙의 길로 잡아준 사진이나 그림 한 장에 짧은 글을 담아 보내주세요.
- 투고**
어떤 형식의 글이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을 환영합니다. 원고는 '가톨릭서울' 편집팀의 심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특별면 '가톨릭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편집장	허영진 신부(서울대교구 홍보국)	편집자	이유림 요셉신부(서울대교구 홍보국)
총괄에디터	서동경 안나(서울대교구 홍보국)	일러스트레이터	송현철 안토니오(서울대교구 영성심리상담교육원)
기획에디터	김근영 가비노(가톨릭서울)		
리빙에디터	구여진 플로리사(서울대교구 홍보국)		

정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 **바로잡습니다!**

지난 9일자 주보 '3월 본당 재정 결산' 중 총지출액 대비 총수입액이 700만 원 부족하게 게재되었습니다. 이는 계정과목 중 '기타현금'의 수입금을 잘못 집계한 것으로 기타현금 수입금은 '27,496,000원'이 아닌 '34,496,000원'으로 바로잡습니다.

◎ **2017년도 명동대성당 '학부모 주일학교 1학기' 안내**

학부모 주일학교 교리는 명동대성당 주일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리와 나눔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장소 : 주일 낮 12시 10분 / 교구청신관 501호
·준비물/문의 : 성경 / 학부모 회장 ☎ 010-8519-2222

일 자	교리·나눔 주제
4월 23일	마르코 복음 3장 나눔
4월 30일	마르코 복음 4장 나눔
5월 14일	전례의 공간인 성전
5월 21일	마르코 복음 5장 나눔
5월 28일	마르코 복음 6장 나눔
6월 11일	7성사 개론
6월 18일	마르코 복음 7장 나눔
6월 25일	마르코 복음 8장 나눔

◎ **명동대성당 선교봉사분과 선교부 신입부원 모집**

예비자들이 세례 받기까지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지원하여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선교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활동 :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 환영식, 세례식, 회합
·모집대상 :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을 가진 40세 이하 신자
·문의 : 양슬기 (카타리나) ☎ 010-9271-1735

◎ **명동대성당 여성봉사분과 신입회원 모집**

·대상 : 봉사에 관심 있는 45~65세 교우 (예비자 환영)
·문의 : 성모회 ☎ 010-5596-3760
완속회 ☎ 010-7128-1995
나자렛어머니회 ☎ 010-5557-5404
루갈다회 ☎ 010-2488-8653

◎ **명동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대상 : 세례 받은 성인 남녀 교우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단장 ☎ 010-8465-4567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단장 ☎ 010-2182-2129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단장 ☎ 010-4325-5048
- **온유하신 어머니 꾸리아**
단장 ☎ 010-7226-2014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40대 청장년, 교적 본당 무관)
단장 ☎ 010-7244-3139

◎ **2017년 김범우 토마스 선조님 묘소 순례자 모집**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분과 소속 범우회에서 2년마다 밀양에 위치한 김범우 토마스 선조님의 묘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창설 초기 명례방(현재의 명동)에 있던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한 분으로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일시 : 4월 22일(토) 07:30 가톨릭회관 후문 앞 출발
·회비 : 2만원 (차량 및 식대 포함)
·문의 : ☎ 011-237-0057 (선착순 모집)

◎ **솔봉이 주일학교 (장애아부) 교사 모집**

솔봉이 주일학교는 만 20세 미만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대상 : 세례를 받고, 견진을 준비하는 만 24~35세 교우
·문의 : 조정래 (바오로) 분과위원 ☎ 010-9986-7270

◎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

·대상 : 세례를 받고, 견진을 준비하는 만 20~29세 청년
·문의 : 이나행 (베로니카) 교감 ☎ 010-4670-8840

◎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

·대상 : 세례를 받고, 견진을 준비하는 20~27세 청년
·문의 : 송지윤 (보나) 교감 ☎ 010-2733-4740

◎ **가톨릭 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오디션 일시 : 4월 23일(주일) 오후 1시
·오디션 장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준비할 사항 : 성가곡 또는 자유곡 1곡
·대상/자격 : 교회음악을 사랑하는 50세 미만 여교우
·문의 : 단장 ☎ 010-4752-6096

◎ **여성독서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28세 이상 45세 미만의 평일 저녁 미사(18시, 19시) 봉사가 가능한 교우
·절차 : 1차 - 전화 인터뷰 (교적 및 교회활동 여부 외)
2차 - 오디션 (일정 추후 공지)
·마감 : 4월 30일(주일) 限
·문의 : 단장 ☎ 010-8722-7113

◎ **라파엘 솔봉이 봉사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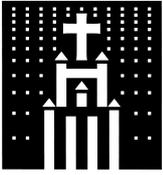
라파엘 솔봉이는 20세 이상의 지적장애, 자폐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신앙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대상 : 20~40세 교우
·활동 : 주일 오전 11시 미사 및 기타 활동
·문의 : 최은경 (마리스텔라) ☎ 010-8889-8109
김창규 (야 고 보) ☎ 010-4130-2009

◎ **명동대성당 성무일도 봉사단 신입단원 모집**

성무일도 봉사단은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드리는 교회의 공적인 기도를 선창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활동 : 월~토요일 오후 6시 미사 전례 전 30분
·대상 : 50세 미만 여교우
·오디션/문의 :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미사 후 회합 (범우관 501호) / ☎ 010-9886-3899



774-1784(☎)
753-1784(FAX)
☎ 본당 연령희 ☎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고찬근(루 카) 신부
부주임 김성은(베 드 로) 신부
선교·교육 김상우(바 오 로) 신부
청년·문화예술 이세호(시 몬) 신부
전례·성음악 장원현(세례자요한) 신부
청소년 박헌성(안토니오) 신부

미 사 성 가	입당 : 130	봉헌 : 129, 134, 215	성체 : 165, 175, 500	파견 : 136
---------	----------	--------------------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당 사제단, 수도자, 사목협의회 일동 -

《 성모의 밤 》

화창한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본당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의 사랑과 온전한 믿음의 한평생을 기리고 본받으며, 이 시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하는 성모의 밤을 아래와 같이 봉헌합니다.

- 일시 : 5월 6일(토) 오후 8시
- 장소 : 성모동산 (우천 시 대성당)

※ 추위를 대비해 따뜻한 옷을 준비하십시오.

◎ 2017년 상반기 견진교리 안내

- 교리시간 : 5월 7일 ~ 5월 28일 (매 주일) 4주간
오후 2시 30분 ~ 3시 50분 / 꼬스트 홀
- 견진성사 : 6월 4일(주일) 오후 1시 30분
- 자격조건 : 세례성사를 받은 만 15세 이상 교우
(2017년 4월 세례자까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견진신청서, 세례증명서, 사진 1장
- ☞ 타 본당 신자 : 견진신청서 안에 마련된
'견진의뢰서' 항목 작성,
'교적증명서' 추가 첨부 (팩스 可)
- ☞ 인터넷 견진교리 수료자는 수료증 필히 첨부
- 신청/문의 : 4월 1일(토)~5월 4일(목)까지
본당 사무실 ☎ 774-1784 (내선 2214번)

- ※ 선착순 350명에 한함.
- ※ 구비서류 제출 시 견진 대부모님 인적사항이 견진신청서에 기재돼 있어야 접수 가능
- ※ 인터넷 견진교리 수료자는 5월 28일 교리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 ※ 반드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 바랍니다.

◎ 성모 성월 꽃 봉헌

5월 성모 성월 기간 중 성당 제대 및 「성모의 밤」을 위한 꽃 봉헌을 받습니다. 봉헌 신청 및 문의는 본당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해성사 휴무

4월 12일(수)부터 4월 23일(주일)까지 상설 고해성사를 포함한 본당 고해성사는 없습니다.

◎ 명동대성당 차량진입로 진출입 통제

바닥 보수공사 관계로 4월 17일(월)부터 4월 21일(금)까지 성당 들머리 차량진입로 진출입을 전면 통제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 교리

- 일시/장소 : 4월 19일(수) 오후 7시 / 꼬스트 홀
- 접수/준비물 : 1쌍 30,000원 / 필기도구 지참
- ※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꼬스트 홀에서 접수

◎ 아프리카 가뭄과 기근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현금

다음 주 부활 제 2 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에는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형제자매들을 위한 2차 현금이 있겠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4/3-4/9).....29,347,000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현금.....39,555,490
 - 사순절 이웃돕기 2차 현금.....12,375,000
 - 감사헌금 (4/3-4/9).....1,900,000
- 강 마리아프란치스카 / 고 니콜라오
김 스테파노 / 남 세례자요한 / 이 수산나
최 마리아막달레나 / 최 세실리아 / 최 안나
황 데레사 / 황 베로니카 / 익명(1)

< 진 레 인 내 >

미 사 (M a s s)	주일미사 (일요일)	대 성 당	오전 7:00, 9:00(Eng.), 10:00, 11:00, 12:00(교중) 오후 4:00, 5:00, 6:00, 7:00(청년), 9:00	고해성사 (Confession)		
		소 성 당	오전 9:00(중·고등부), 11:00(초등부·술봉이)	주 일	오전 10:00 - 오후 8:00	
	주일미사 (토요일)	대 성 당	오후 6:00, 7:00	평 일	월	오후 1:00-5:00 (성직자·수도자만)
				화-토		오전 11:00 - 오후 8:00
	평일미사	대 성 당	오전 6:30, 오후 6:00, 7:00 (월요일은 오후 7:00 미사 없음.)	English	Before 9:00 A.M. Mass on Sunday	
	성지미사	지하성당	오전 10:00 (월-토)	유아 세례 (Infant Baptism)		
직장인미사	소 성 당	매주 금요일 낮 12:15 (공휴일 제외)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